

# 남해안 거점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도약 꿈꾼다

여수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지역관광 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전남을 포함한 남해안권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2회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며 관광 경쟁력을 뽐냈다. '지역관광 발전지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조사해 지역 관광발전 정도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다.

여수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일년동안 1000만명 이상이 찾았던 전국서 손꼽히는 유명 관광지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872만명)과 2021년(977만명)에는 관광객수가 1000만명을 밑돌며 주춤했지만 지난해 12월말 기준 1200만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이전 관광객 수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는 이 같은 높은 관광 경쟁력과 빠른 관광객 회복세에 힘입어 '해양관광 휴양도시' 추진에 본격 나선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체류형·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관광정책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을 단행, 관련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계획은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이 비전으로 제시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을 위한 5대 중점시책 가운데 하나다.

###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웰니스 생태관광자원 개발'

여수시는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웰니스 관광산업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웰니스 관광개발 우선 추진을 결정했다. 지난해 완료된 웰니스·온택트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섬 관광개발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 첫 번째가 금오도 비렁길 활성화다. 비렁길 4코스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출렁다리와 탐방로를 개설한다. 섬 지역 체류형 관광지 조성은 물론 남중권(고흥-여수-남해) 해상관광 루트까지 활성화해 섬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문체부 남부권 웰니스관광활성화사업에 반영될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사업'도 추진한다. 백야대교 인근에 2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웰니스 체험시설과 섬특산물 판매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도 77호선과 연계·조성 중인 일레븐 브리지와 연결된 섬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 개발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완공된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와 연결된 낭도, 적금도, 조발도, 둔병도 등 섬에 대한 관광자원개발은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실시설계 중인 조발도 스카이워크가 완공되면 섬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박람회 부행사장인 개도의 테마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화태와 월호, 제도, 백야도 등 4개 섬에 대한 개발도 2026년 마무리한다.

일레븐 브리지 국제 마라톤 대회와 섬을 주제로 제작된 웹드라마를 상품 상영하는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 개최 등 섬관련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운영할 방침이다.

### ●타깃별 맞춤형 관광 수요 대응



여수시가 높은 관광 경쟁력과 빠른 관광객 회복세에 힘입어 '해양관광 휴양도시' 추진에 나선다. 여수 밤바다 전경. 여수시 제공



지난해 열린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출범식.

### 2026 세계섬박람회 연계 사업 웰니스·생태관광자원 등 개발 타깃맞춤형 관광자원공급 앞장 고부가가치 전시복합산업 육성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여 다시찾는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령별,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관광객 30% 이상을 차지하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기 관광스팟인 해양공원 일원에 스마트 관광 5대 요소를 적용한 글로벌 스마트 원스톱 관광



남면 금오도 3코스에 설치된 출렁다리

서비스와,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공, 힙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이어간다.

소비규모가 큰 40대 이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돌산을 일대 관광단지 조성으로 휴양과 레저가 결합된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열린 관광지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여행상품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당일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크루즈 인프라 조성, 행정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 국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3월 개장을 앞둔 루지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여수 챌린지 파크 관광단지 조성'과 '연안크루즈 활성화', '조명 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 등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도 2024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전시 복합 산업 육성 다양한 산업구조에 경제적 효과를 주는 MICE산업 극대화를 통해 '남해안 거점 MICE 국제회의 도시'를 만들어 간다.

현재 1000억원대 MICE 매출규모를 임기내 4000억원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 아래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등 추

진 방안을 제시한다. 용역은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연관 시설 등을 겸비 하도록 민간, 공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앞서 시는 MICE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월 9일 조직개편을 통해 MICE팀을 관광과로 편입하고 컨벤션센터건립 전에 컨벤션 부로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 ●민·관 협업체계 구축 내실 있는 관광 환경 조성

여수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관광분야 종사자 친철 아카데미, 노후 관광시설 정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관광수용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4월부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전남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용태세 마련과 인센티브 지원 확대, 관광시설 연계할인 등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통한 윈윈 전략을 마련했다.

정재호 여수시 수산관광국장은 "아름다운 섬과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계획을 추진해 민선8기 여수시의 비전인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 여수시의회 오늘 임시회 건의안 등 33건 처리

여수시의회가 14~22일 제226회 임시회를 열어 '여수대-전남대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안' 등 각종 건의안 33건에 나선다.

1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를 통해 시 정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안 등 33개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4일과 22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5일에는 건의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된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시 정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될 예정이다.

주요 건의안으로는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여수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여수시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규 의장은 "올해 여수시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 비전이 잘 담겨있는지, 미래 방향성은 잘 설계됐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환경사원 오후4시→3시퇴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환경사원의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일부터 작업종료 시간을 오후 4시에서 3시로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퇴근 시간 조정을 위해 오전 5시에서 오후 4시까지였던 환경사원 근무 시간이 오전 5시에서 오후 3시로 변경됐다.

휴게시간은 오전 휴게를 '8시부터 9시 30분'에서 '8시부터 9시'로 오후 휴게를 '12시부터 1시30분'에서 '12시부터 1시'로 각각 30분씩 단축했다.

관리공단은 청소 장비의 선진화로 근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여수시, 시의회, 노동조합,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휴게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퇴근 시간을 오후 3시로 변경해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환경사원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휴게시간 30분 조정을 통해 기존 수거 시간대의 변경을 최소화했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며 시민들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